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반대로 돈 같은 물건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환심? 행복? 생각해보면 대체로 돈이라는 매개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감정일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진 것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처음 이 책의 표지를 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당연히 많지 않을까 하고 일차적인 생각을 했던 내가 책의 끝부분에서는 머리가 지끈해졌다. 돈과 그 관계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결말이 안개처럼 흐릿한 문제인 것이 분명했다. 추상적인 감정, 경험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돈을 이용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추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도 언제 어디서 무의식적으로 돈에 이끌리거나 돈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고, 실제 그러한 일들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르기에 부정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사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주변 어른들께 듣고는 했는데, 내 경험상 돈이 인생을 크게 좌우하고, 삶의 질이나 생각을 바꾸는 돈은 사람의 인생과 아주 불가분한 관계인 것 같다. 드라마나 영화, 책에서도 가난과 부, 하류층과 상류층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결국에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의 적음과 많음이 인생의 척도가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를 들어,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서 돈이 없어 아내가 떠나고,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청하거나 무료숙박시설에서 어린 아들과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주인공의 모습과 소위 말하는 한국 막장드라마에서 가난한 서민주인공이 부유한 사람과 만나거나, 신분상승을 위해 돈을 악착같이 버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돈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돈으로 물건과 집을 사면서 충족되는 기본 욕구들로 긍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고, 결국 행복한 삶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또, 여행을 통해 경험과 추억을 쌓는 것도 실제 교통비를 내고 숙박비를 내면서 기본적인 것들이 돈을 통해 충족되어야 2차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움직이면 다 돈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도 어쨌든 새로운 세상과 세계를 보려면 이동하고 쉬고 먹어야 성취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돈으로 물건부터 감정까지 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찾는 것은 수많은 세 잎 클로버들 사이에서 네 잎 클로버를 찾는 것처럼 어렵고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감정들 사이에서 그 질과 깊이가 다른 감정들은 돈을 통해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돈을 통해 얻을 수 없는 감정을 얘기하자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세뇌를 거듭 반복해 나오는 신념인 것 같다.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순수함은 정직하고, 이익을 우선시 하지 않는 따듯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즉, 아무 걱정없이 천진난만하게 놀며 행복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어른이 되어서 되찾으려고 노력해도 힘들고, 돈으로 얻지 못하는 것 같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린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 간직했던 거짓없는 마음과 행복했던 순간들이 순수함이라는 감정의 결정체로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색이 바래거나 존재가 희미해질 정도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신념 중에서도 세뇌를 거듭 반복해 나타나는 신념은 돈으로 얻거나 잊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IS 무장세력의 삐뚤어진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도 이미 굳혀진 신념을 버릴 수 없고, 그러한 신념들은 자신의 의지나 남들의 조종으로 세뇌되어 얻게 되므로 돈과의 관계가 무의미하다.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통제하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세뇌 당한 신념을 버리는 것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얻어지는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